CHUNCHEON URBAN REGENERATION
NEWS MAGAZINE

2024 WINTER | VOL.16

춘천도시재생

춘천 도시재생 매거진 | 치읗치읗 16호

발행호 16호 | **발행일** 2024년 12월 10일 | **창간일** 2020년 10월 01일 | **발행처**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발행인** 신현만
편집위원 이경은, 성현아, 이해인, 김준희 | **디자인/인쇄** 내일기획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3 시청별관 3층(033-245-5264) | **협조** 춘천시

uris.chuncheon.go.kr



춘천 도시재생 매거진

치읗치읗

Special

엔딩크레딧

장면 2024

도시를 기록하는 이유 | 스트리트리포터
약사거리, 걸이 해설사 | 2024 약사명동 마을해설사 교육 프로그램

2024 WINTER **Vol.16**

CHUNCHEON URBAN REGENERATION
NEWS MAGAZINE

FOCUS 춘천

04
특집
엔딩크레딧
장면 2024

16
춘천시
도시를 기록하는 이유
스트리트리포터

26
약사명동
약사 거리, 걸이 해설사
2024 약사명동
마을해설사 교육프로그램

32
교동소양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도시재생
2024 교동소양
어린이 도시재생학교

LOVE 로컬

40
교동소양
우리 곁에 춘천미술관

FOCUS 춘천

46
교동소양
한잔의 여유를 담다
나만의 커피 한잔,

52
조운소양
내 손으로 그려낸 춘천
상상을 그리다

56
조운소양
힐링을 전하는 퇴근길 버스킹
틈새콘서트 시즌 3



상상을 그리다 <내 손으로 그려보는 춘천>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도시재생

발행호 통권 16호
발행일 2024년 12월 10일
창간일 2020년 10월 01일

발행처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발행인 신현만
편집위원 이경은, 성현아, 이해인, 김준희

디자인/인쇄 내일기획 (T.033-261-5364)
문의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T.033-245-5264)

장면 2024

Ending Credit

2024 DECEMBER 12



場面

조운동네는 늘 축제

조운위크 봄

기간
2024. 04. 27 ~ 04. 28.

장소
춘천시청 광장

함께한 사람들
담당 이예은
용역사 협동조합 판
참여자 춘천 시민 대상
공연 퀸즈마칭밴드
강원일보 어린이합창단
강원대학교 밴드동아리 '꾼'
아디오스매직
여성듀오밴드 'varnish'
삑삑이의 코믹마임쇼
아라댄스 아카데미
인디밴드 '그림하일드'













생각이 바뀌면 도시가 변한다

2024 녹색교통 해커톤

기간

2024. 06. 05 ~ 06. 06.

장소

조운웰컴센터

함께한 사람들

담당 편지영
용역사 동네방네 협동조합
협력 한림성심대학교 링크사업단
강연 박정환 센터장
(춘천사회혁신센터)
김윤정 대표
(포미컴퍼니)
멘토 김승주 교수
(한림성심대학교)
김윤정 대표
(포미컴퍼니)
이윤환 대표
(컬쳐랩)
참여자 권성민, 권이진, 김다은, 김다휘, 김민서, 김예닮, 김용준, 김윤서, 김은지, 김지윤, 김희수, 남승우, 박서현, 박채현, 박희영, 배제윤, 서아영, 송상혁, 신유정, 엄승빈, 엄현태, 오세호, 윤준규, 이서연, 이성민, 이승준, 이요나, 이채원, 이태영, 정지혜, 정혜지, 지성진, 최근우, 최승아, 홍지인











일상을 파고드는 틈새 힐링

틈새콘서트 시즌2,3

기간

2024. 01. 28. ~ 03. 25. / 2024. 10. 08.~ 12. 05.

장소

지하상가 중앙광장, 피카디리 극장 앞 등

함께한 사람들

담당 이예은
용역사 스탠딩플러스
참여자 [시즌2] 김은평, 김은송, 강석우, 김은서, 김예정, 이주연, 신지음
[시즌3] 덕호씨 밴드, 김성민, 조예지, 김대웅, 강민정, 지하실, 진혜인, 안선준, 김광섭, 기성우, 메리플레인, 유리미파솔, 소리에이드, 내일을 여는멋진여성, 이정희, 안경진, 박다영, 훈남스, 이나경, 최승우, 아로하, 김진규, 주노가, 현악기연구소, 호산나우쿨, 황석중, 푸른 나그네, 춘천 플롯앙상블, 윤슬 오카리나, 헵시바 합창단, 민계숙, 춘천 오카리나, 정우준, 온가람, detour(길용진), 라비에벨우쿨











우리마을
공구대여소 만들기 프로젝트
목공 교육 프로그램 1,2차

기간
(1차) 2024. 04. 25. ~ 05. 30.
(2차) 2024. 09. 26. ~ 10. 18.

장소
집수리도서관

함께한 사람들
담당 이혜진, 김보희
목공 1차 운영 약사명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문복례
목공 1차 강사 라우드 손제준, 문복례
목공 2차 운영 약사명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목진수
목공 2차 강사 뚝딱 방영규, 김명숙
참여자 박준석, 강창훈, 김홍주, 박묘준, 김현정, 이명자, 윤종숙, 진상용, 김영숙, 이형우, 정한길, 손은영, 김경민, 이로이스, 고종건, 김리연, 이시영, 김순성, 문복례, 양은숙, 김현숙, 선우미애, 이성실, 류미경, 이옥자, 이희영







책과 커피,
사람이 어우러지는 공간
북카페 보니

기간
2024. 04. 01. ~ 06. 27.

장소
커뮤니티 돌봄센터 A동 2층 북카페

함께한 사람들
담당 이해인
용역사 쿼드
바리스타 참여 강앵란, 이선화, 이은명, 오미례
대상 교동소양동 주민 및 춘천시민





조운동네를 샅샅이!
조운동네 좋은소식

기간
2024. 04. ~ 12.

장소
조운동 사업구역 일대

함께한 사람들
담당 이예은
용역사 도서출판 산책
참여자 [인터뷰] 성기봉, 이현주, 이숙자, 최신민, 김나현, 김재현, 이성민, 최승임, 길창인, 문윤정, 정진희, 신정현, 안세은, 최지영, 민금자, 박순희, 권영우, 서영림, 이승호, 박승훈, 조성호, 김진형, 손준호











흙으로 빚는 세상, 약사는 전시중

테라코타 교육 프로그램과 약사테라전

기간

2024. 07. 02. ~ 08. 28. / 2024. 09. 27.

장소

약사리 공유공간 2층 / 집수리도서관

함께한 사람들

담당　이혜진
전시회 운영　약사명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로이스
테라코타 강사　장회준·호해란
전시회 해설사　정한길, 이옥자
참여자　문복례, 박한주, 정한길, 양은숙, 진순자, 손은영, 류미경, 권민진, 이연순, 심부순, 송미경, 유병칠, 이옥자, 김현숙, 최희지, 김희숙, 김도수, 손기문, 이희영, 안정선, 이성실, 이문희, 김영숙, 이유경, 김진원, 이단비, 이재옥, 경예빈, 백행원, 허은진, 안향옥, 김복인, 서혜진, 조환희, 최동영, 안금희, 박영숙, 고정숙, 김은주, 허유미, 임정숙, 이기령, 심상환, 낭경미, 이주연, 이종선, 이아정, 이상민, 전정수, 김명신, 김정혜, 김나윤, 윤종식, 조현옥, 김리연, 이기령, 최은희, 조은주, 조상미, 임수연, 정진실, 김지후, 윤서현, 고순영, 고종건
사진 협조　이원일(@cc_masil)











함께하는 건강, 함께 만드는 마을!

주민 건강리더 발굴 프로그램

기간

2024. 03. 13. ~ 07. 10. / 2024. 09. 02. ~ 12. 06.

장소

커뮤니티돌봄센터 A동 1층 GX룸

함께한 사람들

담당　이해인
운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사　정은희, 김보경, 박수희, 김라윤
운영 참여　오미례, 이은명
대상　교동소양동 주민 및 춘천시민





맛의 향연, 약사리에서 만나다

카페 모으다 프로젝트와 약사리 디저트 데이

기간

2024. 08. 26. ~ 10. 11. / 2024. 10. 09. ~ 10. 10.

장소

약사리 공유공간

함께한 사람들

카페 담당　이혜진
카페 운영　약사명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로이스
카페 강사　임동호(총괄), 남수희(인문학)
디저트데이 담당　김준희
디저트데이 운영　약사명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문복례
참여자　송경희, 조희숙, 김명숙, 이옥자, 이명자, 신혜숙, 조일선, 목혜균, 이경미, 김순태, 이희영, 홍미영, 윤종숙







약사먹거리 연구소 - 약사장(醬)

약사명동 특화먹거리 개발 및 상품화



기간

2024. 10. 05 ~ 10. 18.

장소

낭만마을 수공업팩토리

함께한 사람들

담당 이지나
운영 약사명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문복례
참여자 김명숙, 조희숙, 신혜숙, 윤종숙, 이명자, 김순태, 홍미영, 이옥자, 김혜경, 목혜균, 함희숙, 이경미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도시재생

2024 교동소양 어린이 도시재생학교





기간

2024. 09. 06. ~ 11. 08.

장소

교동초등학교, 교동·소양 도시재생 사업지 일대

함께한 사람들

담당 정임정
용역사 나누스페이스
강사 박민화(로이스사진공방), 정민우, 권용식(백하스튜디오), 한보나, 강연이, 조가영
촬영 스튜디오13
협조 교동초 이지영 교무부장, 류경미 선생님, 정다빈 선생님
참여자 [3학년] 강준, 김성현, 김은찬, 류호준, 박권률, 박지안, 박지환, 박하목, 서아인, 엄상현, 오지환, 유아린, 윤희온, 이채윤, 정수혁, 최원석
[4학년] 김가현, 김강선, 김도하, 김루하, 김태훈, 박진영, 이나윤, 이나현, 이연우

HiVE 연계 직원역량강화교육

도시재생과 조경





기간

2024. 10. 02~30.(매주 수요일)

장소

집수리도서관, 한림성심대학교

함께한 사람들

담당 이경은
협조 최유리·김기평(하이브사업단)
강사 이종찬·양선주(강원조경아카데미)
참여자 김보희, 정임정, 편지영, 이혜진, 김준희, 함영진, 이해인, 이지나, 이예은, 우정현, 성현아

내 손으로 그려보는 춘천

상상을 그리다









기간

2024. 09. 07. ~ 10. 28.(매주 토요일)

장소

상상언더그라운드 일대

함께한 사람들

담당 성현아
용역사 디자인나무
강사 최지관 작가
참여자 신현서, 신서영, 김태훈, 장윤서, 김나율, 한승훈, 김정효, 최쟈스미나, 박민주, 손가은, 변효주, 신예원, 김보경, 이윤주, 김승빈, 백채원, 양서아, 김가연, 최서빈, 이하율, 정승준

약사 거리, 걸이 해설사
약사명동 마을해설사 교육





기간
2024. 09. 26. ~ 11. 02.

장소
집수리도서관 1층, 약사명동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함께한 사람들
담당 김준희
운영 동네방네 협동조합 강민희·하종범
강사 공릉꿈마을협동조합 이선옥,
소양하다 윤한, 강원도문화관광해설사회 박성수
참여자 오은주, 오현주, 김명숙, 문복례, 정한길, 김순성, 김영숙, 이대식, 진상용, 배종진, 방솔내, 황석범, 손순철, 이경원, 이순필, 조선재, 이천식, 이옥자

춘천도시재생 SNS홍보단
스트리트리포터





활동기간
2024. 07. 08.~11. 20.

장소
춘천시 도시재생권역 일대

함께한 사람들
담당 이경은
운영 소양하다 윤한·백낙원
스트리트리포터 고종건, 김제운, 백준용, 오현주, 윤기선, 위지영, 이로이스, 이원일, 이주현, 전영호, 정태호, 진찬우, 채희문, 허유미
멘토 김헌 한예연구사(춘천문화원)
권소담 기자(MS투데이)
박종범 대표(농사펀드)

나만의 한 잔 채우기
로스팅 프로그램





기간
2024. 11. 12. ~ 2024. 12. 05.

장소
교동소양동 도시재생 공유공간

함께한 사람들
담당 이해인
용역사 큐디
강사 김리유, 임동호
참여자 강희준, 김하늬, 김혜진, 김정민, 박영희, 백준용, 이선화, 이윤서, 이정숙, 김재형, 왕예순

춘천도시재생을 찬찬히 기록하다
치읓치읓



기간
정기간행물(계간지)

함께한 사람들
편집위원 이경은, 성현아, 이해인, 김준희
디자인/인쇄 내일기획 유웅식·한성훈
특별기고 고종건, 김보희, 오현주, 윤다솜, 정임정
인터뷰(도시재생) 장회준, 문복례, 이명자, 남정옥, 강앵란, 이선화, 진순자, 권민진, 김현숙, 손기문, 손제준(라우드/목공강사), 안녕하는 사이, 이혜진, 이예은, 함영진, 윤한(소양하다)
인터뷰(러브로컬) 김수창(천주교 춘천교구 사회복지 회장/한삶밥집), 김로아(아워테이스트), 노경희(몽레브), 김지혜(책방달방), 김이조(사회혁신센터), 강승용(춘천일기스테이), 이수현(춘천미술협회)

스트리트리포터

도시를 기록하는 이유

글 이경은 코디네이터(춘천시)
인터뷰/사진 소양하다, 스트리트리포터



@g_ogry
@kim_jw9912
@_yong.film_
@ilesticiavecmoi
@samaksan
@cc_masil
@edi_torj
@chuncheontrip
@jin_9nine
@chaeheemun
@differ.heo

@soyang_hada
@uris_chuncheon

녹음 사이에서 매미가 울던 여름,
우리의 활동이 시작되었죠.

7월 우리는, 거리를 지키는 건축물들을 다루었고,
8월 우리는, 거리를 만드는 이벤트를 알렸죠.
9월 우리는, 거리를 바꾸는 사람들을 만났고,
10월 우리는, 거리를 채우는 먹거리를 소개했습니다.
11월 마침내 우리는, 거리를 연결하는 여행길로 안내했습니다.

기억 속에 묻혀있던 건물들과 오래된 길목,
마을을 빛내는 상점들과 반짝이는 사람들,
익숙해서 지나쳤던 이야기와 새삼 반가운 이야기.

결국 스트리트리포터의 여정은
도시의 온기를 찾아내고 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136일 동안 담아낸 116개의 이야기

1 거리를 지키는 건축/공간
- 춘천의 추억, 요선터널
- 현대건축 1세대, 강원도 건축물
- 시공을 넘어, 약사동 망대
- 다시 보다 춘천 (feat. 춘천미술관)
- 문화
- 춘천
- 〈죽림정사〉
- 소양강과 멋진 조화, 춘천 건축 조형물
- 육림고개, 왜 육림일까?
- 동부시장
- 약사천 복개와 꼬꼬야시장
- 상상공원 (feat. 조금 더, 조운동)
- 봉의산마을창작소
- 수공업팩토리 (feat. made by 약사천)
- 갤러리상상언더(feat. 지상만가)
- 조운웰컴센터
- 상상언더그라운드
- 우리마을 공구 대여소, 집수리도서관
- 아이들의 꿈을 키워요, 어린이작업실!
- 좋은동네, 조운동
- 춘천 봉황길에서 만난 공간
- 조운동 마중물 사업 알아보기
- 약사명동 마중물 사업 알아보기
- 약사명동 〈카페모으다〉 운영회의
- 도시재생사업과 빈집에 관하여
- 도시재생과 소프트웨어사업

2 거리를 만드는 이벤트
- 춘천민예총 특별전시 〈꿈꾸는 춘천〉
- 가족과 함께하는 조운놀이 〈웰컴조운동네〉
- 청소년 벽화 프로그램 〈상상을 그리다〉 참여자 모집
- 청소년 벽화프로그램 〈상상을 그리다〉
- 현황 작업 현장!
- 2024 하반기 행사 총정리
- 문화예술 대안공간 〈올웨이즈 땡〉에서
- 열린 〈밴드조 콘서트〉
- 닭갈비, 막국수에 이은 〈춘천 복숭아 축제〉
- 배우고 익히니 이 또한 즐거움이
- 〈춘천평생학습축제〉
- 정겨운 도심 속 이벤트 〈
- (feat. 약사천 복원사
- 번쩍번쩍 변화
- 춘천문화원
- 〈춘천 대
- 상
- 〈
- 춘천 약사명동 우동 다이닝 〈은은〉
- 지역 농산물로 즐기는 한끼, 약사명동 〈어쩌다 농부〉
- 약사명동에 특별한 먹거리가 온다! 〈특화먹거리 품평회〉
- 육림고개에서 운치와 함께 즐기는 프리미엄 한우 〈메이샤〉
- 춘천시 요선동 핫플 카페 〈훗〉과 도시재생 이야기
- 영화 아메리칸셰프를 아시나요? 〈콘스델리〉
- 오늘은 추억의 호두파이? 〈독일제과〉
- 그릭요거트&샌드위치카페 〈요거샌드〉
- 오감으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곳, 핸드드립 전문 〈하비커피〉
- 춘천 만두 맛집 〈이순례 손만두〉
-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노포 〈유일관〉
- 명동 지하상가 광장에서 여유로운 차 한 잔 〈은하수커피〉
- 맛있는 피자를 먹을 수 있는 곳 〈저스트피자〉
- 한적한 오후 맛
- 〈오늘 춘천〉
- 요선동 〈하늘마루〉에서
- 새로운 맛집 등

3 거리를 바꾸는 사람들
- 테라코타, 흙으로 빚는 세상
- 약사명동 테라코타 거리
- 예술이 숨
- 발걸음이
- 춘천에 아
- 약사명동 〈
- 약사리 문화마을 〈약사테라전〉
- 메이드 바이 약사천
- 춘천 약사동 주민들이 운영하는 〈카페 모으다〉
- 정을 모으는 카페 〈카페 모으다〉
- 약사명동 도시재생과 함께하는 〈카페 또모으다〉
- 배우고 만들고 함께하는 〈약사명동 목공 2〉
- 아날로그 세대의 마지막 기억 〈육림극장 전시〉
- 레츠고우! 〈약사명동 마을해설사〉
- 2024 육림무비페스타
- 아이들의 시선으로 보는 도시재생 〈교동 어린이도시재생학교〉
- 우정, 그
- 교동
- (feat.
- 토
- 〈
- 과
- 〈틈새
- 조운웰컴

춘천은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춘천문화원 김현 학예연구사

취재글,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MS투데이 권소담 기자

4 거리를 빛내는 상점들
- 〈지상만가: I love harbee〉
- 춘천로컬크리에이터가 만든 천연비누 공방 〈르사봉〉
- 조운동 상가 〈에스프레소바 오이트〉
- 마을과 사람을 잇는 구름다리 〈카페 조운동〉
- 춘천 노포 9
- 육림고개의 매력적인 공간들
- 주민이 만드는 달콤한 맛의 축제 〈약사리 디저트데이〉
- 〈약사리 디저트데이〉
- 디
- 춘천 약사명동 우동 다이닝 〈은은〉
- 지역 농산물로 즐기는 한끼, 약사명동 〈어쩌다 농부〉
- 약사명동에 특별한 먹거리가 온다! 〈특화먹거리 품평회〉
- 육림고개에서 운치와 함께 즐기는 프리미엄 한우 〈메이샤〉
- 춘천시 요선동 핫플 카페 〈훗〉과 도시재생 이야기
- 영화 아메리칸셰프를 아시나요? 〈콘스델리〉
- 오늘은 추억의 호두파이? 〈독일제과〉
- 그릭요거트&샌드위치카페 〈요거샌드〉
- 오감으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곳, 핸드드립 전문 〈하비커피〉
- 춘천 만두 맛집 〈이순례 손만두〉
-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노포 〈유일관〉
- 명동 지하상가 광장에서 여유로운 차 한 잔 〈은하수커피〉
- 맛있는 피자를 먹을 수 있는 곳 〈저스트피자〉
- 한적한 오후 맛
- 〈오늘 춘천〉
- 요선동 〈하늘마루〉에서
- 새로운 맛집 등

인터뷰, 당신이 이야기가 될 때
소양하다 윤한 대표

5 거리를 채우는 먹거리
- 교동
- 〈
- 춘천 역사여행
- 감성과 생각을 열어주는 춘천 예술&인문학 여행

먹거리 콘텐츠를 다루는 일
농사펀드 박종범 대표

6 거리를 잇는 여행길
- 춘천의 밤을 채우는 심야책방 〈책방달방〉
- 마음을 짓다 〈작심〉
- 상상언더그라운드 카페

로컬x도시재생x투어, 어떻게 만들까?
소양하다 윤한 대표

스트리트리포터가 추천하는 춘천 여행

모든 글은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전문은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스타그램(uris_chunche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춘천의 감성을 담는 사진 여행, PHOTRIP

춘천의 아름다운 장면을 사진으로 담아내는 마실스냅 작가, **이원일** 리포터

푸르른 자연과 도시의 감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춘천은,
소양강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이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PHOTRIP은 이러한 춘천의 다채로운 매력을 사진에 담아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여행객들을 위한
맞춤형 사진 여행 코스입니다.

소양강 스카이워크
투명한 유리 바닥 위를 걸으며 아찔한 스릴을 느끼고,
소양강의 탁 트인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몰 무렵에는 붉게 물든 하늘과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소양강 처녀상
아름다운 처녀상과 소양강의 조화는
춘천의 정취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테라코타 거리
약사동 주민분들이 직접 흙을 빚고 구워 만든
600여점의 테라코타 조형물들을
골목길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죽림동 성당
죽림동 성당은 고풍스런 외관과
아름다운 스테인드글라스가 인상적인 곳입니다.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사진을 담아보세요.

상상마당 춘천
김수근 건축가의 독창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상상마당 춘천은 자연과 예술이 조화를 이룬 공간입니다.
나비를 형상화한 건축물은 사진 찍기 좋은 배경이 됩니다.







책과 기록을 위한 춘천 당일치기 여행 코스

진정성 있는 영상으로 춘천 도시재생을 기록하는 1인 크리에이터, **허유미** 리포터



책과 기록을 좋아하는 파워 내향인들을 위한
안온한 공간들을 소개합니다.
책은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담은 그릇이고,
기록은 그 그릇을 채우는 소중한 재료입니다.
매일 남기는 작은 기록들이 모여,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춘천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록해보세요.

사유식당 정갈하고 건강한 한끼 식사로 여행 시작!

춘천 향교 오랫동안 춘천 봄내골의 공교육기관 노릇을 해온 춘천향교. 수령 120년된 은행나무도 볼 수 있어요!

304 아일랜드 기록가를 위한 문구점! 기억노트, 사과노트, 모든 계절 일기 등 용도에 맞는 노트들을 구매할 수 있어요.

적파우 '삶의 파도, 어떻게 항해할 것인가' 적파우 노트는 긴 여정의 탐험가로써 삶을 바라보게 합니다.

독립서점 춘천서림 서점 내에는 '카페 봄내울책숲'이 있고, 화랑에 있는 책과 기획 전시책은 자유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복합문화공간 기록장 도시와 사람, 기록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이는 창작 아지트이자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

약사명동, 역사와 감성의 거리

사람과 자연을 좋아하는 고독한 대식가, **정태호** 리포터

보문각 보문각은 약 55년의 역사를 지닌 오래된 식당으로,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비빔국수와 탕수육이 유명하고,
비빔국수는 특유의 매콤하면서도 깔끔한 맛으로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약사천 수변공원 약사천을 따라 산책하기

경서재 감성 한옥 카페로, 전통적인 한옥의 분위기와
현대적인 즐길 거리를 결합한 장소입니다.
앙버터 호두과자와 소고기 미트파이가 인기가 많습니다.
저녁 시간에 와인이나 가벼운 술도 즐길 수 있어
낮과 밤의 분위기가 색다릅니다.

오월학교 새둥지 서면에 위치한 오월학교에서 맛볼 수 있었던 음식들을
이제는 약사천에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인기메뉴인
오월 된장 우동, 명란 들기름 파스타 등도 판매합니다.

죽림동 성당 성당 주변 정원에는 다양한 종교 조각이 자리하고 있으며,
성당 앞에서 시내를 내려다보는 풍경이 인상적입니다.
사계절 내내 장엄한 모습을 간직한 죽림동성당은,
그 아름다움 속에 역사의 흔적과 신앙의 깊이를 담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신앙을 넘어서는 울림을 선사합니다.





거리의 기억

사라져가는 골목의 이야기를 필름카메라로 담는 사람, **백준용** 리포터

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을 되짚어 보고자 떠나는 여행입니다.
저는 거리(골목길)가 단순히 통행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집과 집, 사람과 사람을 이어서 정을 나누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름카메라로 한 장씩 소중하게 기록하다 보면,
공간에 대한 추억이 더욱 짙게 남습니다.
당시의 기억과 감정을 보존하고자 필름카메라로 한장씩 소중하게 기록해봅니다.





- **효자동 벽화 거리** — 다양한 주제의 그림들, 다채로운 색깔로 아름답게 변신한 벽화거리
- **약사동 테라코타 거리** — 조각가 권진규 작가님의 서거 50주년을 기념하여 약사동 주민들이 테라코타 작품을 손수 만들어 거리를 장식했다.
- **약사동 망대길** — 약사고개 정상에는 1960년대에 산불감시용으로 세워진 망대가 있다.
- **조운동 골목길** — 산비탈에 위치한 좁고 가파른 골목길. 아침햇살과 석양이 비치는 마을, 지금은 사라진 구름다리가 있던 마을이다.
- **카페, 조운동** — 오래된 다락방 건물을 개조하여 운영하고 있는 카페이다. 주인장이 손수 그린 조운동 걷기지도가 있다.

우리 동네 근대문화유산 여행! 저 높은 곳을 향하여 Higer Ground!

살아있는 춘천 도시재생 지역을 그리고 기록하고 싶은 기록자, **오현주** 리포터

- **죽림동 성당** — 춘천의 첫번째이자 가장 큰 성당으로 1949년에 지어졌어요. 언덕 위에서 두 손을 들고 축복하는 듯한 청동 소재 예수성상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 **망대** — 죽림동 성당의 맞은편에는 오랜기간 춘천시의 화재와 같은 위험을 알리던, 높이 솟은 망대가 있어요. 망대로 향하는 골목길은 박수근이나 권진규 같은 한국 예술의 거장들이 한때 하숙하며 거닐었던 곳입니다.
- **도지사 구 관사** — 시청 뒤편 강원도지사 구 관사는 독일 표현주의적 건축 성향을 보이는데, V자형 기둥이 캐노피를 지지하는 등 웅장한 스타일의 60년대 건축입니다.
- **소양로 성당** — 봉의산 자락에 반원형 평면으로 비대칭적인 구조를 가진 소양로 성당은 장식적인 요소들을 배제한 단순한 형태와 기능적 구조로 50년대 근대 양식의 교회 건축을 고스란히 보여 주어요!









문화 유적지를 따라서 사색의 길을 걸어보는 춘천 역사 여행

친환경 라이프로 춘천의 건강한 맛과 이야기를 담는 사람, **채희문** 리포터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라는 말이 있지요. 과거가 존재하기에 지금 우리가 존재합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문화유적지를 따라 걸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을 생각해 보는 시간!
이 춘천 역사여행 코스는 모두 걸어서 돌아볼 수 있는 코스이며
유적지 앞에는 친절하게 유적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안내자가 없이도 충분히 여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통해 현재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춘천 역사여행, 아이들과 손잡고 시작해보세요.

- **위봉문과 조양루** — 조선 말기의 아궁(임시 궁궐)의 자리에 남아있는 내부 출입문과 문소각의 문루
- **봉의산 순의비** — 고려시대때 봉의산성에서 몽고군과 대치하다가 전사한 안찰사 박천기와 춘천 주민들의 넋을 기리는 순의비
- **봉의산성** — 고려시대 몽고군 침입때 대항했던 곳이자 임진왜란과 6·25전쟁의 격전지
- **춘천 혈거유지** — 신석기 시대의 주거지 유적
- **춘천 향교** — 조선시대 교육기관
- **당간지주** — 절의 깃발을 매다는 당간을 지탱하던 기둥
- **소양로 비석군** — 춘천의 여러 선정비들을 모아둔 곳
- **소양정** — 삼국시대에 세워졌으나 여러 차례 소실되고 다시 재건된 곳, 소양강 경치가 아름다운 곳
- **강동대장간** — 춘천 지역에 남아있는 유일한 대장간
- **소양로 성당** — 국내 최초로 중세풍을 벗어난 근대적 양식을 도입한 성당 건축물
- **춘천 칠층석탑** — 고려시대의 석탑









추억의 길을 걷다

봄내골 구석구석과 애틋한 이웃의 이야기를 그려내는 사람, **윤기선** 리포터

가파른 세태의 변화로 과거의 흔적들이 잊혀지고, 사라져가는 현실.
여지껏 오랜 시간 살아온 춘천.
오래된 세월의 흔적들을 다시 꺼내어 기억해볼까 해서 가을빛 투명한 날, 길을 나선다
아침 빛 좋은 날, 구름다리 건너 朝雲洞에서부터 要仙洞까지

- **운교동 성당** — 병인박해 100주년이었던 1965년 춘천교구 최초로 설립된 한국 순교복자 기념 성당
- **위봉문** — 1646년 춘천부사 엄황이 관아 옆에 지었던 문소각의 출입문이다. 1890년에 이궁으로 고쳐 지었다.
- **소양로 성당** — 반원형에 기둥이 없는 특이한 구조로 현대 성당 건축사에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 **카페 봉의산 가는길** — 춘천 작가분들, 글 쓰시거나 그림 그리는 분들, 원로들이 아지트처럼 모이는 곳이다.
- **춘천대첩기념 평화공원** — 국군 제6사단이 북한군 제2사단에 큰 피해를 입히며 6일 동안이나 남하를 지연시킨 '춘천대첩'을 기린다.
- **당간지주와 칠층석탑** — 고려 중기 충원사라는 사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 **평창이모집** — 달랑 테이블 두개로 30년이 넘게 이어오고 있는 요선동의 작은 노포.
  춘천 시인묵객들의 사랑방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연인과 함께 추억여행

춘천의 도시경쟁력과 자생을 돕고 싶은 청년, **김제운** 리포터

- **김유정 레일바이크** — 추억과 낭만이 있는 강촌! 각기 각색의 테마가 있는 터널과 아름다운 북한강 절경을 즐기는 코스
- **김유정 문학촌** — 김유정 선생의 생가와 살아생전 집필한 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곳
- **저스트피자** — 춘천지하상가에 위치한 피자 맛집! 손바닥 사이즈의 피자도 있어요.
- **춘천미술관** — 시민들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편안한 시민 문화 공간
- **커뮤니티돌봄센터** — 교동에 위치한 공유공간입니다. 방문 전 프로그램을 확인해주세요.
- **산토리니카페** — 그리스의 산토리니 섬을 모티브로 한 조형물과 깔끔한 인테리어가 매력적인 곳







춘천, 변화의 중심을 걷다! 문화와 맛, 커피로 떠나는 도시재생 여행

자신만의 문체로 지역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은 에디터, **이주현** 리포터

이 여행 코스는 춘천의 도시재생 권역들과 그곳에 자리 잡은 카페, 맛집, 예술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을 통해 새롭게 변화한 공간들과 청년 창업자와 예술가들이 만든 특별한 공간들을 탐방하면서
춘천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약사명동 어쩌다 농부** — 이른 아침 간단하고 건강한 식사로 하루의 에너지 충전하기
- **명동 지하상가** — 독특한 레트로 감성과 다채로운 상점들이 모여 있는 곳
- **소양강 스카이워크** — 소양강 위를 걷는 스릴과 소양강의 아름다움 만끽하기
- **요선동 요싸롱** — 예술 감상과 휴식의 시간, 차 한잔을 즐기며 한옥의 정치와 예술적 감성 느껴보기
- **약사동 일식당 은은** — 감각적인 일식으로 점심 식사
- **교동 춘천미술관** — 예술 산책
- **조운동 오이트에스프레소바** — 커피와 여유로운 마무리







가족과 즐기는 액티비티 춘천여행코스

춘천의 변화와 도시재생의 긍정적인 가치를 알리고 싶은 청년, **진찬우** 리포터

- **봄내극장** — 춘천을 대표하는 소극장. 연극이나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작업실** — 춘천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도시재생과 만나 마을창작공작소 어린이 작업실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린이 친구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우미닭갈비** — 춘천하면 닭갈비! 점심으로 춘천의 대표 음식인 닭갈비를 맛볼 수 있습니다.
- **중도 물레길** — 춘천 중도 호수에서 카누, 요트 등의 수상 레포츠를 체험하는 코스이며,
  카누를 타고 가족들과 함께 삶의 여유로움과 일상 탈피의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스카이워크** — 스카이워크는 강 위를 걷는듯한 짜릿한 느낌을 줍니다.
  여행 코스의 마지막으로, 일몰 후 오색 조명등이 켜지며, 또 다른 환상적인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스트리트리포터의 여정을 담다

춘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활발히 소통하고 싶은 사람, **고종건** 리포터

다양한 주제와 이야기들로 가득했던 스트리트리포터활동은 단순히 기록하는 것을 넘어
춘천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하고 이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지역 문화를 담아낸 스트리트리포터분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겠죠?



약사테라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약사테라전은 주민분들이 같이 테라코타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들로 마을의 거리를 장식하고 그걸 기념하는 행사였어요.
작품을 함께 만들어서 그런지 되게 다들 친숙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세상에서
한동네 사람들끼리 모여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게 감동적이었어요.
스트리트리포터는 제가 젊었을 적 가졌던 기자의 꿈을
가장 가깝게 실현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어요.
너무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

리포터 채희문님

올해 학교생활이 너무 바빴고,
리포터 과제는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런데 다른 리포터님들의 작품들을 보니까
다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에디터가 꿈인데, 이번 활동이 너무 좋은 자극이 되었어요.

리포터 이주현님



춘천의 예전 사진이랑 요즘의 모습을 비교해서
사진 찍는 것을 자주하곤 했습니다.
도시재생 권역에서 사람들 모습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대면하면서 인터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새로운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분들과 만났고,
참 재미있게 작업했습니다.

리포터 이원일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가을 햇볕처럼 따뜻하면
평범한 일상이 여기 있는 작품들처럼 아름답고 따뜻하게 다가와요.
무심코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관심을 갖고 따뜻한 마음으로다가
운명을 바라보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춘천을 따뜻한 눈매로, 따뜻한 가슴으로 바라보고
표현을 해주고 발표하는 일이 많으면 좋겠어요.
리포터 윤기선님









도시를 기록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들여다보는 것이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고 재미있는 것들을 담다 보니 어느새 서로와도, 마을과도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야기를 열심히 담아내는 동안,
여름의 녹음은 짙어지고, 붉게 물들다, 낙엽이 되어 살포시 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우리의 여정도 여기에서 마무리합니다.
스트리트리포터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분들과 우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들께
고개 숙여 인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또 뵙고 싶어요.

- **사업명** 춘천도시재생 SNS홍보단 운영
- **홍보단명** 스트리트리포터
- **활동기간** 2024. 07. 08. – 2024. 11. 20.
- **계정** 인스타그램 @uris_chuncheon

2024 약사명동 마을해설사 교육프로그램

약사 거리, 걸이 해설사

글/사진 김준희 코디네이터(약사명동)

사업명
2024 약사명동 마을해설사 교육 프로그램

장 소
집수리도서관, 약사명동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기 간
2024. 09. ~ 2024.11.

내 용
마을해설사 양성을 위한 심화 교육

선선한 가을이 느껴지더니, 어느새 하얗게 입김이 서리는 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가을, 2024 약사명동 마을해설사 교육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집수리도서관에서 진행되었으며, 지난 마을해설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수료자와 신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심화 과정을 통해 약사명동 마을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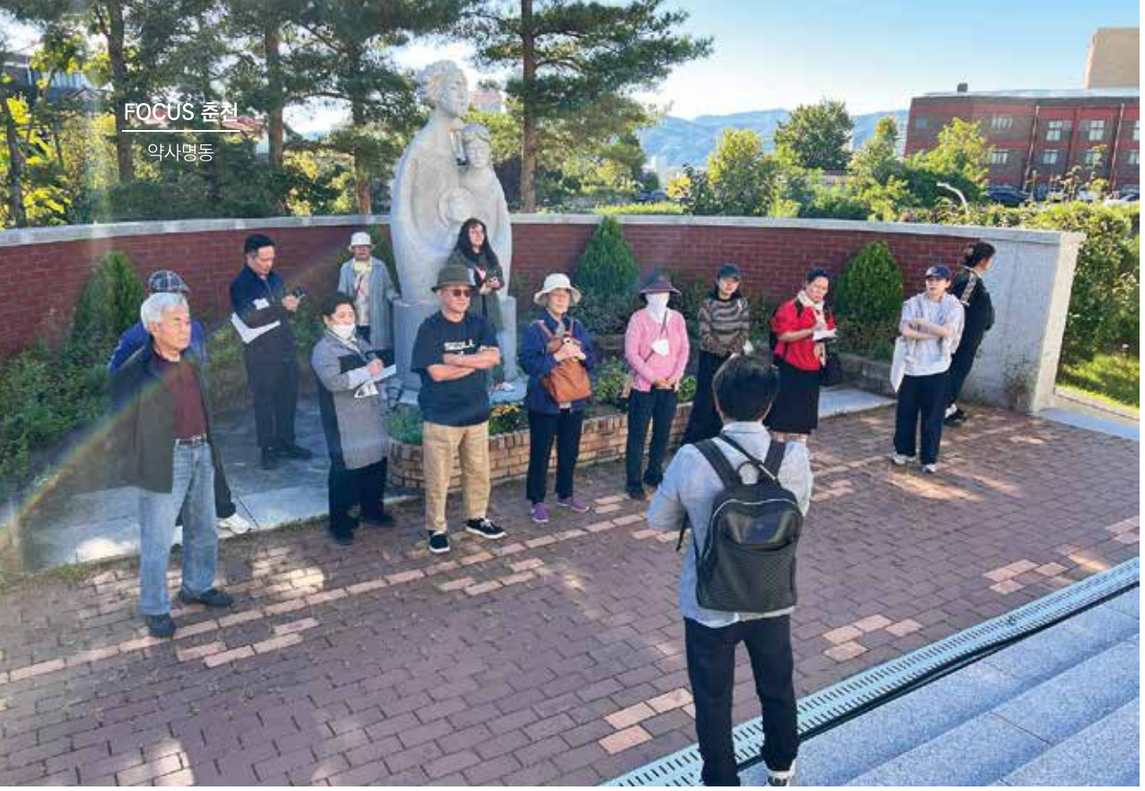
프로그램은 총 10회차로 구성되어 기본 교육, 견학, 자체 시연, 실전 해설사 운영 교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10월 11일에는 춘천 도심 도보여행의 <물따라 낭만따라> 코스에서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직접 해설을 듣는 견학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육생들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실제 해설의 기법과 노하우를 배우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자체 시연 교육**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문화관광해설사 협회의 전 회장님의 지도 아래, 현재 만들어진 약사명동 코스를 함께 돌아보며 점검하고 피드백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생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해설의 완성도를 높이고, 자신감을 쌓아 이후 진행될 실전 교육에서 적절한 해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초반에 오셨던 강사님의 말씀처럼, 이번 교육 일정이 무척 어려운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생들은 열의 가득한 마음으로 스스로 맡은 스팟에 대해 A4 용지를 빼곡히 채워 공부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도 충분히 잘 해내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월 26일 토요일**, 첫 실전 해설사 운영의 날이 밝았습니다. 1코스인 시간여행길은 마을해설사 교육생 3명이 팀을 이뤄 진행했으며, 7명의 신청자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시간여행길은 약사명동만의 마을 자원인 약사천, 약사리 고개, 죽림동 성당, 박수근 출근길 등 시간의 흐름이 담긴 지역 명소를 둘러보는 코스입니다. 모든 코스를 다 둘러본 후에는 다시 시작 지점인 집수리도서관으로 돌아와 어반 스케치를 진행하는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체 시연 때는 맡은 스팟에 대해 너무 열심히 소개하신 나머지 코스 예상 소요시간이 훌쩍 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교육생들이 적절하게 시간 배분을 해 스케줄에 맞춰 도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11월 2일 토요일**에는 2코스인 테라코타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코스는 마을해설사 교육생 5명과 7명의 신청자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테라코타길은 약사명동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과 골목 곳곳에 설치된 주민들이 직접 만든 테라코타 작품을 감상하며 걸어보는 코스이며, 마지막에는 어반 스케치를 진행하는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와 달리 화창한 날씨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스팟인 약사리 공유공간에서는 '카페 모으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분께서 직접 커피를 내려주셔서 즐거운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마을해설사 프로그램에서는 총 13명의 수료자가 배출되었습니다. 수료식에서는 그동안 교육생들의 노력을 축하하며, 춘천 시장 직인이 찍힌 수료증을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님이 직접 수여해 주셨습니다.

<2024 약사명동 마을해설사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관광객 간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약사명동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생분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약사명동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2024 교동소양 어린이 도시재생학교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도시재생

글/사진 정임정 코디네이터(춘천시)







2회차

2회차는 교동소양동 마을 탐방을 하며 사진수집 활동을 했습니다. 오전에 비가 내릴까봐 걱정했었는데 비가 그치고 오히려 탐방하기 좋은 선선한 날씨였습니다. 교동초 종합 예술실에 3, 4학년이 다 함께 모인 후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장 수업이라 그런지 아이들의 눈이 초롱초롱 했습니다. 강사님이 사진수집 주제와 필름카메라 사용 시 주의사항을 설명해주시고, 다 같이 교동소양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커뮤니티 돌봄센터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동 후 카메라를 배부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탐방을 시작해 볼까요?











뒷모습만 봐도 신난 아이들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마을 꼭대기에 올라가니 교동소양동이 한눈에 보였어요. 사진을 찍기 전 학생들마다 주제가 정해져 있어서, 색깔, 모양, 동물 등 주어진 주제를 바탕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컷 한 컷 사진을 찍으며 마을을 알아가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날씨가 흐리긴 했지만 비가 안와서 무사히 마을 탐방을 마치고 단체사진까지 완료하며 마을 탐방 수업이 끝났습니다.

3회차







지난 수업까지 머리로 익히고, 몸으로 체험하며 마을을 알아갔으니 3회차 수업은 마을 탐방 수업 때 찍은 사진을 영상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본인이 찍은 사진이 잘 나왔는지 살펴보고 영상을 만들어 보았어요.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테블릿에서 볼 수 있어서 신기해 하는 친구들! 아이들이 집중해서 강사님의 설명을 듣고 찍은 사진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중해서 영상을 만들며 우리 마을을 떠올려봅니다. 영상기획도 해보고 마을과 어울리는 음악도 정해보고, 영상을 제작 하며 아이들이 마을을 생각하는 모습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4회차







어느덧 4회차 수업입니다. 4회차 수업 주제는 '아이들이 꿈꾸는 우리 마을 그리기'입니다. 아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그리고 바라는 교동소양동은 어떤 모습일까요? 알록달록 본인만의 색깔이 담긴 모습으로 미래의 우리 마을을 그려봅니다. 봉의산도 있고, 다이소도 보이고, 빵집, 고양이병원, 대형 문구점, 디즈니랜드 등 있었으면 하는 것들이 아이들마다 달랐습니다. 공통적으로 다이소를 다 넣어줬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와서 각자 본인이 꿈꾸는 마을을 설명해보고 다른 친구들이 그린 마을을 보며 수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5회차






5회차는 우리 마을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강사님께서 우리 마을 교동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영상 편집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들 집중을 잘하고 있죠? 우리 마을을 어떻게 알려볼지 고민하며 기획부터 해보고, 제목, 분위기, 색깔, 선 등 어떻게 구성해 볼지 미리 글로 써보면 더 쉽게 포스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편집 어플을 이용해 개성을 살려 본인만의 포스터를 만들어보고, 각자 교동을 생각한 포스터를 발표해 보았습니다. 친구들이 만든 포스터를 보며 호응도 해주고 박수도 쳐주며 5회차 수업이 끝났습니다.











어느덧 6회차! 교동소양 어린이도시재생학교 마지막 날입니다. 성과공유회와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상상해서 그린 마을지도, 홍보 포스터, 회차별 수업 때 모습들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전시 되었습니다. 마을탐방 때 찍었던 사진들이 인화되어 나눠주는 것을 시작으로 수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태블릿으로 만든 포스터가 눈앞에 전시되어 있고, 필름으로 찍었던 모습들이 인화된 사진으로 되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으니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동안 활동했었던 영상도 시청했습니다. 지난 활동 영상을 보니 9~11월 아이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활동해 주었구나 생각이 들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전시된 아이들의 활동 결과물을 감상하고 어린이 각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또 하면 안돼요? ” 라는 말을 듣고 담당자로써 안도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뭉클했습니다.











아이들 소감 후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님 인사 말씀과 수료증 수여, 마지막으로 단체사진을 찍고 수료식이 마무리 되면서 교동소양 어린이 도시재생학교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으로 본 교동소양동의 미래 모습은 따뜻하고 웃음이 있어 정감가고, 편리한 시설들이 많아 행복한 마을이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해 준 3, 4학년 친구들! 앞으로도 모든 것에 열심히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교동소양 어린이 도시재생학교 수료를 축하합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



LOVE 로컬

춘천덕질

일상에서 숨 쉬듯 만나는 예술

춘천 우리결에 미술관

글/사진 윤다솜
인 터 뷰 춘천미술협회 사무국장 이수현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71 (옥천동)
운영시간 10:00~18:00
문 의 033-241-1856







춘천중앙감리교회를 새단장해 만든 춘천미술관 전경.
교회 양식을 그대로 살린 전시관으로 특별한 분위기를 갖고있다.

안녕하세요. 춘천시도시재생센터 매거진 '치읓치읓'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천미술관에도 울긋불긋 가을이 내려 앉았는데요. 춘천 미술인들의 구심점인 춘천미술관이 옥천동에 자리 잡은 지 오래됐죠?

네, 춘천미술관은 1995년부터 춘천미술협회가 위탁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삼천동 어린이회관 전시실에서 시작했는데요.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운 곳에서 미술의 저변을 확장시키기 위해 2000년 옥천동 옛 중앙감리교회 건물을 전시장으로 단장해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춘천미술관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가와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문화 휴식공간입니다.

교회 건물을 새단장해서 그런지 전시장의 구조가 특이합니다.

네, 춘천미술관은 2층 건물로 이뤄져있습니다. 1, 2전시실을 보유하고 있고 연간 50여회의 전시 중심의 대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담해 보이지만 실용적인 전시관으로 미술인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 특성상 층고가 높아서 그런지 전시관을 대관하시는 분들이 만족스러워 하십니다.





춘천미술관 내부 전시실 모습.
1, 2층으로 이뤄져 있으며 교회 건물 특성상 층고가 높아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연간 50여회의 전시가 이뤄진다는 것도 놀라운데요.”

춘천미술협회에서는 매년 연말에 다음연도 대관 예약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대관 신청을 시작하는 날, 기본적으로 30건 이상의 전시 예약이 이뤄집니다. 가장 좋은 시기와 날짜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합니다. 특정 갤러리에서는 그 장소의 컨셉과 목적에 맞는 전시를 선별해서 대관을 하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문화 휴식 공간인 춘천미술관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춘천미술협회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교육기관, 단체 등 모든 이들이 춘천미술관 전시실을 대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관료도 저렴한 편입니다.



'예술은 당신이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2022년 리모델링을 하면서
내부 모습이 더 환해졌다.
일상 속의 예술을 지향하는 춘천미술관 답게
'우리곁에 춘천미술관'이 적혀있다.

“춘천시에서는 현재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동안 춘천미술관이 시립미술관 역할을 해 오셨죠. 그 중심에는 춘천미술협회가 있습니다. 미술협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춘천미술협회는 1962년에 설립됐는데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단체입니다. 협회는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서예, 문인화, 조소, 공예,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춘천 지역내 200여 명의 작가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미술협회전은 오랜 명맥을 이어온 전시이기 때문에 자랑거리입니다. 1962년 3월 창립전을 시작으로 올해는 63회를 맞이했습니다. 춘천미술인들의 대표작품들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동시에 춘천시의 예술적 자존심을 지키고 자긍심을 키워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미술관 입구 모습.

그동안 협회에서는 공익적인 역할도 담당해오고 있죠.

네, '문화도시, 미술을 탐하다'라는 시민참여 예술교육프로그램입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 맞게 초등학생부터 장년층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회화와 공예, 캘리그라피, 포토샵, 일러스트, 페이퍼플라워를 비롯해 올해는 흙을 주제로 한 도예와 조각 및 목공예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장르를 배우는 데다가 수료 이후에는 전시회까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춘천시립미술관이 건립되더라도 현재 춘천미술관에서 해오던 공익 프로그램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옥천동에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는 춘천미술관은 그야말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사랑방 같은 역할도 해내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예술을 전업으로 한다는 것 보다는 시민들에게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문화예술을 느끼고 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춘천미술관에서 많은 전시가 이뤄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작가와 일반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봄내미술인전'은 더욱 특별해보입니다.

네, 올해 '2024 봄내미술인전'은 지난 5월에 열렸는데요. 춘천의 미(美)를 극대화시켜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켰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2001년 시작 당시 '새봄미술인전'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2004년 춘천예총에서 주관하는 봄내예술제 행사와 결합되면서 지금의'봄내미술인전'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봄내미술인전은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하는 특별한 전시입니다. 연령대와 성별, 직업도 다양합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춘천에 살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을 미술로 표현합니다. 서면에서 밭을 일구는 농부도, 학교에 다니며 공부하는 학생도,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도 모두가 전시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주시면서 다양한 예술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예술로서 일상으로부터 해방을 느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춘천미술관은 언제나 연중무휴 모두에게 열려있습니다. 사계절 모두 아름다운 풍경을 갖고 있는 춘천미술관으로 오시면 예술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의 무한한 발길로서 이 곳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천시는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춘천미술관이 해오던 공익적인 역할을 시립미술관이 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춘천미술의 명맥을 이어오고 예술가와 일반 시민 사이의 거리를 좁혀온 옥천동 '춘천미술관'의 새로운 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담쟁이 넝쿨이 미술관을 감싸안고, 겨울에는 눈이 소복히 쌓여 그 풍경만으로도 예술입니다. 그리고 미술관 문앞에 자리를 지키는 위성류나무까지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에 한 발만 내딛으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나만의 커피 한잔

한 잔의 여유를 담다

글/사진 이해인 코디네이터(교동소양)

사업명

2024 하반기 북카페 운영 사업

기 간

- **북카페 보니 운영** : 2024. 11. 09. ~ 2024. 12. 08.(매주 토·일 5주간 운영)
- **로스팅 프로그램** : 2024. 11. 12. ~ 2024. 12. 05.(매주 화·목 8회 운영)

내 용

교동·소양동 주민과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북카페 공간 운영 및 로스팅 프로그램 진행

장 소

- **북카페 보니 운영** : 커뮤니티 돌봄센터 A동 2층, 북카페 보니(춘천시 옥천길 40번길16)
- **로스팅 프로그램** : 도시재생 공유공간(춘천시 교동 93-111번지)



커피 한 잔,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따뜻한 향기와 부드러운 맛으로 정성껏 내린 커피 한 잔은 마치 포근한 햇살처럼 우리의 일상을 여유롭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많은 현대인들에게 커피는 그저 아침잠을 깨기 위한 수단이거나, 점심시간의 피로를 덜어내기 위한 일상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여러 잔의 커피를 마시면서도 점차 그 향기는 사라지고, 한 잔의 여유는 일상 속에서 잊혀가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이 주는 진정한 여유를 되찾기 위해, 잠시 멈추고 그 한 모금을 음미해 보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북카페 보니가 재정비하여 돌아왔습니다.



로스팅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도시재생 공유공간 외관 모습

휴일을 보낼 때 가장 여유롭고 소중한 시간을 떠올려보면, 휴식을 핑계로 하루 종일 뒹굴거리거나 거창하게 여행을 떠나는 것보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그날의 햇살을 느끼고 주위를 돌아보는 느긋한 시간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공감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여유가 아닐까? 누군가에겐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커피 한 잔 속에 담겨 우리의 하루를, 또 일상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게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교동·소양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2024 하반기 북카페 운영 사업은 이러한 마음을 담아 준비하였습니다. 북카페 보니를 방문하는 주민분들과 춘천시민에게 바쁜 일상 속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향기를 선물하고, 지친 몸과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Coffee



북카페 보니의 내부 모습

기존 북카페 보니의 운영과 차별화된 점은 커피 한 잔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로스팅 프로그램이 추가되었습니다. 커피의 맛을 느낄 새 없이 바쁜 일상에 직접 핸드드립으로 시간을 들여 내린 커피를 음미하고, 원두를 볶아보며 나만의 드립백까지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잊고 지내던 여유를 되찾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봉의산 자락 밑에 위치하여 사계절 다채롭게 물든 경치로 모습을 변화시키는 교동·소양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도시재생 공유공간에서 로스팅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커피'라는 하나의 주제로 핸드드립 교육을 전문적으로 배워보기 위해 도시재생 공유공간에 마을주민과 춘천시민이 삼삼오오 모였습니다. 믹스커피 밖에 모르시던 주민 할머니부터, 핸드드립 커피를 취미로 즐기는 젊은 부부, 북카페 보니의 바리스타님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한자리에 모여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가 가시기도 전에 춘천커피협회 회장 임동호 강사님과 부회장 김리유 강사님이 준비한 다양한 나라의 커피 원두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우며 금세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핸드드립 시범을 보이시는 김리유 강사님



핸드드립에 대한 이론 강의 중인 모습

"천천히~! 천천히~! 여러분 천천히 하셔야 돼요!
너무 빨라요. 여유를 갖고 충분히 시간을 들이세요."

수업 중 강사님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빨리'가 익숙해진 우리에게 '천천히'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핸드드립을 실습 중인 모습

"제대로 된 커피 한 잔을 맛보기 위한 과정이
이리도 수고스러웠다니! 근래에 이렇게 정성을 쏟은 일이 있었던가?"

수업에 참여하신 참여자분들께서 입을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핸드드립 커피의 첫걸음은 드리퍼에 필터를 넣고 뜨거운 물로 충분히 적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분쇄한 원두를 넣고, 물 30g을 부어 25초간 뜸을 들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1차 추출이 시작됩니다. 물 160g을 가는 물줄기로 중앙에서 시작해 바깥쪽으로 나선형을 그리며 천천히 붓습니다. 이 과정은 약 1분 10초 정도 소요됩니다. 이제 2차 추출로 넘어갑니다. 물 260g을 1차 추출보다 굵은 물줄기로 1분 50초 동안 부어 최종 추출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커피는 농도에 따라 추출된 커피에 가수를 더해 조절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핸드드립 커피가 탄생합니다. 각 단계마다 신중함과 정성을 더해 한 잔의 커피가 주는 깊은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핸드드립을 내리는 참여자분들의 모습 / 핸드드립을 내리기 위한 드리퍼, 서버, 드립포트

같은 원두로 핸드드립을 내렸지만 참여자마다 각기 다른 맛의 커피가 완성되었습니다. 각자의 개성이 담긴 커피를 나누고 음미하며 한 사람의 커피에는 과일 같은 상큼함이, 또 다른 사람의 커피에는 깊고 진한 풍미에 어느새 마음의 조급함은 잊고 여유와 따뜻함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핸드드립을 실습 중인 모습

남은 회차의 수업이 어떤 향기로, 또 어떤 한 잔으로 채워질지 기대해 보며 북카페 보니와 로스팅 프로그램이 잊고 지내던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선물해 주길 바라봅니다.







상상을 그리다

내 손으로 그려낸 춘천









글/사진 성현아 코디네이터(조운소양)

사업명	상상을 그리다	**장 소**	상상언더그라운드 일대
기 간	2024. 09. 07.~ 2024. 10. 26.	**내 용**	청소년 벽화 교육 프로그램













2021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4번째로 진행되는 청소년 문화교육 〈상상을 그리다〉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상상언더그라운드 조성사업 운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소년 문화교육을 진행하며 춘천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증대하고, 예술 교육을 통해 원도심인 지하도상가의 이미지를 변화시켜 방문객을 확충해 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사업인데요. 이런 목적을 담은 조성 사업으로 비어 있는 공실을 리모델링한 ‘상상언더그라운드’는 지하도상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앙로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연습실(댄스·밴드·연극)과 소공연장(시민 사용 가능)이, 남부로에는 예술인 공방 거리와 시민 창작 전시 공간인 갤러리 상상언더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청소년 문화교육은 남부로의 예술인 공방 거리와 갤러리 상상언더 사이에 위치한 계단을 대상으로 한 벽화 교육이 진행되었는데요. 중앙에 위치한 광장에 비해서는 유동 인구가 적은 입구이지만, 예술인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의 특별한 컨셉을 살리고, 참여하는 청소년들도 지역 예술인이 되어보는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었답니다.






교육은 9월~10월 매주 토요일 8주간 진행되었으며 먼저, 벽화의 메인 주제인 '춘천'의 명소들에 대해 무엇이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춘천 하면 소양강댐과 삼악산 케이블카라는 고민의 결과는 메인 벽화 그림이 되었으며 춘천의 시화인 개나리와 시조인 산까치까지 함께 벽화에 담았답니다. (벽화를 그리면서 춘천의 시화와 시조를 알게 된 친구들도 있었다는 건 비밀이에요!) 처음에는 장난스러운 모습들이 가득했던 청소년들이었지만 붓으로 직접 배경부터 그림까지 색칠하고, 조각을 붙이는 과정들을 통해 어느샌가 진지하게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예술인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참여한 학생들의 인터뷰 듣고 가시죠!

학생 1

학교 게시판에 포스터가 붙어있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갖고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벽화 활동은 처음이라 어렵기도 했어요. 매주 조금씩 그려나가다 보니 그림이 완성되는 점이 신기했고, 내가 색칠한 벽이 작품이 된다는 게 뿌듯해요. 다음에도 벽화 활동 프로그램이 있으면 신청하고 싶어요!

학생 2

봉사활동 홈페이지에서 벽화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했어요. 매주 토요일에 나오는 게 조금은 힘들었지만, 결과물을 보니 뿌듯합니다.

학생 3

친구가 먼저 신청하고 같이하자고 추천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계단에 벽화를 한다는 게 처음엔 이해가 잘되지 않았는데 그림을 보드에 그리고 나중에 붙이는 방식이 신기했어요. 나중에 다른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진지하게 참여했던 청소년들의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벽화는 앞서 소개해 드린 '갤러리 상상언더' 공간 앞에 자리 잡고 있답니다. 벽화만 구경하러 오기에는 아주 조금 멀 수 있어요. 갤러리 상상언더에서는 작가님들의 전시도 함께 진행되고 있으니 구경하고 가세요 :)

틈새콘서트 시즌3

힐링을 전하는 퇴근길 버스킹

글/사진 성현아 코디네이터(조운소양)



사 업 명 틈새콘서트 시즌3
기　　간 2024. 10. 08.~ 2024. 12. 05.
장　　소 피카디리 극장 앞, 지하상가 중앙광장
내　　용 여섯시 퇴근길 시간을 이용한 버스킹











길었던 하루의 끝, 발걸음을 재촉하며 모두 바삐 집으로 가려는 발걸음을 잠깐 멈추게 하는 노랫소리가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피카디리 극장 앞과 지하상가 중앙광장인데요.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틈새콘서트 시즌3가 진행되었습니다.











매주 화·수·목요일 6시부터 30분간 퇴근길 틈새 시간 버스킹 공연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보컬만으로 승부를 띄운 팀부터 기타, 바이올린, 우쿨렐레, 가야금 등의 다양한 악기들의 무대를 감상하며 매력을 느꼈죠. 함께한 공연팀들은 재능을 뽐낼 무대가 필요했던 춘천 기반의 동호인, 청소년 등의 춘천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무대를 준비했답니다. 솔솔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포근한 지하상가의 분위기와 함께 길었던 하루의 끝을 가벼운 힐링의 시간으로 선물했던 틈새콘서트 시즌3 '여섯 시 버스킹'이었습니다.

춘천 도시재생 매거진 | 치읓치읓 16호

춘천 도시재생 매거진 'ㅊㅊ(치읓치읓)'은
춘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보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분들의 활동 소식을 공유하기 위한 소통 공간입니다.

춘천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더 많은 분들과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소통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홈페이지〈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https://uris.chuncheon.go.kr
블로그〈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https://blog.naver.com/c_crsc
유튜브〈춘천도시재생〉
https://www.youtube.com/channel/UCdg0FbJGB_AKPTkhPhjg3Bg
인스타그램〈춘천도시재생〉
https://www.instagram.com/uris_chuncheon/

약사리마을 소통공간
카페〈춘천 약사리 문화마을〉
https://cafe.naver.com/munhwavillage
인스타그램〈춘천 약사리 문화마을〉
https://www.instagram.com/yaksa_village
페이스북〈춘천 약사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https://www.facebook.com/YaksariFriends

교동소양동 소통공간
인스타그램〈교동 소양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https://www.instagram.com/vital_village_
페이스북〈교동 소양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https://www.facebook.com/Gyo2019

조운동네 소통공간
인스타그램〈조운동네〉
https://www.instagram.com/joundongne
유튜브〈조운동네〉
https://www.youtube.com/channel/UC_haKq39kpwy6FDLgW97YtA
블로그〈조운동네〉
https://blog.naver.com/joundongne

춘천시 City of Chun Cheon 춘천도시재생 소근소근문화마을 약사길 문화마을 봉의산 비탈마을 조운동네 50호 마을